

# 견관절 전방 습관성탈구의 치료

## -관절경 및 관혈적 Bankart 병변 수복술의 비교-

최창혁, 권평우, 김신근, 이상욱, 신동규, 김용운  
대구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### 목 적

전방 견관절 습관성탈구에 대하여 시행한 관절경 및 관혈적 Bankart 병변 수복술의 임상경과를 비교 분석하여 치료결과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.

### 대상 및 방법

1996년 5월부터 1999년 6월까지 24명의 전방 견관절 습관성탈구 환자에 대하여 관절경적 술식을 16례에서, 관혈적 술식을 8례에서 시행하였다. 평균 연령은 26세(16-64), 우세수지는 15례, 비우세수지는 9례이었고, 남녀비는 각각 18례, 6례 이었다. 최초 탈구의 원인이 스포츠와 관계된 경우가 13례, 추락 및 실족이 5례, 발작 2례,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경우가 4례 이었다. 술 전 운동범위는 이환부가 굴곡 171도, 외회전 61도, 내회전 T9, 정상축이 각각 172도, 64도 및 T7이었다. 술 전 평균 3.3년의 이환기간을 거쳤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2년 9개월(4년 10개월 1년 9개월)이었다.

### 결 과

술 후 운동통은 관절경적 술식의 경우 평균 2주, 관혈적 술식의 경우 평균 3주에 소실되었으며, 관절 운동 및 기능회복의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각각 4주 및 6주째 이었다. 추시 관찰 상 관절 운동범위는 관절경적 술식의 경우 굴곡 170도, 외회전 56도, 내회전 T8이었고, 관혈적 술식의 경우 굴곡 168도, 외회전 52도, 내회전 T9 이었다. 관절경적 술식의 경우 2례(13%)의 재탈구 소견을 보였으며 운동시 경도의 불안정성을 느낀 경우가 4례(25%)이었고, 관혈적 술식의 경우 1례(11%)에서 경도의 불안정성을 보였다. Rowe의 기능평가상 양호이상의 결과는 관절경적 술식의 경우 13례(81%), 관혈적 술식의 경우 7례(88%)이었다( $p>.05$ ). 관절경적 술식 후 발생한 재탈구 2례는 관혈적으로 재수술하여

만족의 결과를 보였다.

## 결 론

적절한 환자선정 및 수기의 적용으로 관절경적 술식 및 관혈적 술식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, 관절경적 술식의 경우 관혈적 술식에 비해 초기 회복소건은 빠른 양상이나, 작업이나 운동 복귀를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활치료를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